

북한이 기억하는 고대 아시아: 최광국 『아시아고대사』의 특징과 한계*

이 유 표**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최광국 교수가 집필한 『아시아고대사』의 저술 목적과 구성, 그리고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저자는 ‘아시아고대사’의 범위를 ‘노예소유주’와 인민대중(노예를 포함한)의 투쟁이 전개된 시기로 규정하면서, ‘탈서구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아시아 나름대로의 역사 발전 단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노예소유자사회’의 흥망성쇠에 따라 장절을 구성하면서, 마지막 장에서 서구 역사 발전에 대한 아시아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본서의 특징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의 부족으로 인한 내용 서술의 부침, 자료의 과도한 해석(예컨대 서주 시기의 ‘정전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료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한계가 엿보이는 것이 아쉽다.

[주제어] 최광국, 아시아고대사, 북한, 탈서구중심주의, 대동강문화

목 차

I. 머리말	III. 본서의 특징과 한계
II. 본서의 편찬 목적과 구성	IV. 맺음말

I. 머리말

‘아시아’ 대륙의 총 면적은 약 4400만 평방킬로미터로 전 세계 육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아시아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적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 본문은 국제고려학회에서 주최한 제15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2022.8.10.~12. 오사카).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연구위원 / historyplee@gmail.com

지역에 따라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으로 구분하는데 익숙하다. 20세기 초 독일의 슈팽글러 같은 경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로, 인도, 바빌로니아, 중국, 이집트, 멕시코, 아랍, 고전 그리스와 로마, 서구 ‘문화권’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인도, 바빌로니아, 중국, 아랍이 아시아에 속한 ‘문화권’이었다. 슈팽글러는 각 문화권마다 독자성과 폐쇄성을 강조하면서, 각 문화는 생물체처럼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며, 각 문화는 유일성을 획득하고, 한 문명의 인간들은 다른 모든 문명으로부터 단절, 격리된다고 여겼다.¹⁾ 이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시아’라는 개념어의 어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지역 혹은 ‘동방’을 의미하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지닌다. 예컨대, 아카드어 같은 경우 ‘asu’ 혹은 ‘acu’라는 말이 ‘오르다(rising)’라는 의미고, ‘erib’ 혹은 ‘erebu’라는 말은 ‘들어가다(entering)’라는 뜻인데, 전자는 ‘아시아’의 어원이 되고, 후자는 ‘유럽’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아시아’는 어원에서부터 ‘유럽’과 상대적 혹은 대대적(對等的)인 관계였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과 상대적 혹은 대대적인 ‘아시아’ 인식은 근대에 이르러 인문사회과학적인 학술 용어로 확장되었다. 예컨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아시아적 사회’ 등 ‘아시아적’이라는 학술 용어가 있는데, 이는 마즈다 히사오(松田壽男)가 지적한 것처럼 구미 사람들의 아시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구 세계를 기준으로 한 척도를 아시아에 적용시켜, 이 척도에 맞지 않는 것을 ‘아시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라는 담론은 설정부터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아시아’를 단위로 그 역사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일본을 사례로 들면, 마즈다 히사오의 『アジアの歴史』,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郎)의 『アジア史』,⁴⁾ 후지이에 레이노스케(藤家禮之助)가 편찬한 『アジアの歴史』,⁵⁾ 오사와 요스케(大澤陽典) 등이 편낸 『アジアの歴史』,⁶⁾ 그리고 도호사(同朋舎) 출판사가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편찬한 『アジアの歴史と文化』⁷⁾ 시리즈 등이 있다. 이는 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를 나누어 서술 한 후, 이를 ‘아시아’라는 단위로 종합한 것이지만, ‘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할 것인가 꾸준히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문명 아시아’ 혹은 ‘아시아 문명’ 담론이 제기되어 2019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를 대대적으로 추진 하면서 역사와 관련된 많은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⁸⁾

1) 오스발트 A. G. 슈팽글러(저), 양해림(역), 『서구의 몰락』(개정판 리커버), 책세상, 2019년판.

2) Heikki Mikkeli, *Europe as an Idea and an Identity*,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1998, p.3.

3) 松田壽男, 『アジアの歴史』,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년판, 12쪽.

4) 島田正郎, 『アジア史』, 京都: 啓文社, 1977년판.

5) 藤家禮之助 編, 『アジアの歴史』, 東京: 南雲堂, 1993년판.

6) 大澤陽典, 大庭脩, 小玉新次郎編, 『アジアの歴史』, 京都: 法律文化社, 1995년판.

7) 이 시리즈는 1994~1995년 『中國史』가 5권으로 출간되었고, 1997년 『南アジア史』가, 1999년에 『中央アジア史』와 『北アジア史』, 그리고 2000년에 『西アジア史』가 출간되었다. 이중 『중국사』 5권이 신서원에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로 번역 출간 되었다.

8) 2019년 5월 15일~22일, 중국은 ‘아시아문명대화대회(亞洲文明對話大會)’를 개최, 이 기간을 ‘아시아문명주간(亞洲文明週間)’으로 선포, 학술행사는 물론, 전통 음식과 음악 등 문화를 교류하는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였다(https://topics.gmw.cn/node_

이런 와중에, 북한에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담론, 그것도 ‘고대 아시아 역사’를 대상으로 한 담론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2018년 평양에 자리한 백과사전출판사에서 출간된 최광국 교수의 『아시아고대사』라는 책이다.⁹⁾ 그렇다면 북한이 기억하고자 하는 ‘고대 아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이러한 담론을 꺼내 들었는가? 본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서의 서술적 특징과 의의, 그리고 본서가 지니는 한계까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¹⁰⁾ 많은 전문가들의 질정을 구하는 바이다.

II. 본서의 편찬 목적과 구성

본서의 저자인 최광국 교수는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부교수로, 언제부터 재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기사를 근거로 봤을 때,¹¹⁾ 2010년대 말에서 2020년대 초반에 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논문이 확인 된다.¹²⁾

저자는 ‘머리말’에서 본서의 저술 목적에 대해, 아시아 나라들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아시아의 고대 역사 발전을 왜곡하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끼친 동방적 영향을 외면하는 이른바 ‘부르조이어용사기’들의 유럽중심주의를 타파하는데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¹³⁾ 다시 말해, 서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 발전을 그대로 아시아에 적용시키지 않고, 아시아 나름대로의 역사 발전을 탐구하여, 오히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구의 역사 발전에 끼친 아시아의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먼저, 큰 틀에서 본서의 장절 구성을 보도록 하자.

122154.htm, 2022-8-1 검색).

9) 본서는 총 207페이지 분량으로, 저자가 대학 교수라는 점, 그리고 목차와 참고문헌을 봤을 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재로 추정된다(최광국, 『아시아고대사』,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8).

10) 본고에서 ‘본서’는 최광국의 『아시아고대사』를 가리킨다.

11) 최광국의 박사학위 취득은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로동신문』 2021-7-24)에 근거한 것이다.

12) 최광국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광국,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대아시아전략에서 주목되는 대일정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51-2(378), 2005, 42쪽; 최광국, 「미일사의 호상방위원조협정과 종속적인 군사적결탁의 강화」, 『력사과학』 2006-1(197), 56쪽; 최광국, 「일본에서 자민당지배체제수립과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 57-3(453), 2011, 94-96쪽; 최광국, 「문자발생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 58-2(462), 2012, 77-80쪽; 최광국, 「제2차 세계대전후 오키나와를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미제의 책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 59-1(471), 2013, 86-89쪽; 최광국, 「하라파문화의 계급적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률』 61-1(495), 2015, 94-97쪽; 최광국, 「고대아시아노예제도의 특징」, 『력사과학』 2019-1, 63-64쪽. 다만 논문에 저자의 소속과 직위가 생략되어 있어 모두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문자발생에 대한 리해」, 「하라파문화의 계급적 성격」, 「고대아시아노예제도의 특징」의 내용이 본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편의 저자는 본서의 저자와 동일인이 분명하다.

13) 최광국, 앞의 책, 2018, 1쪽.

- 제1장 아시아고대사의 시기구분과 특징
 - 제1절 아시아고대사의 시기구분
 - 제2절 아시아고대사의 특징
- 제2장 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형성
 - 제1절 고대문명발상지들에서의 국가형성
 - 제2절 서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형성
 - 제3절 서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형성
 - 제4절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형성
- 제3장 아시아고대국가들에서 노예제도의 수립과 강화
 - 제1절 전제주의적정치제도의 수립과 강화
 - 제2절 노예소유자적경제제도의 수립과 강화
 - 제3절 신분제도의 수립과 강화
- 제4장 아시아지역에서 노예제도의 쇠퇴요인과 고대국가들의 멸망
 - 제1절 노예제도의 쇠퇴요인
 - 제2절 고대국가들의 멸망과 봉건국가의 형성
- 제5장 아시아의 고대문명이 유럽에 준 영향
 - 제1절 유럽의 고대국가형성에 준 영향
 - 제2절 유럽의 고대문화발전에 준 영향

본서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시아고대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 특징을 먼저 서술한 후(제1장), 고대국가의 형성(제2장) 및 고대국가 속에서 노예제도의 수립과 강화(제3장), 그리고 노예제도의 쇠퇴와 함께 고대국가의 멸망을 다루고(제4장), 마지막으로 아시아 고대문명이 유럽 고대 문명에 끼친 영향(제5장)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 제1절에서, 고대시기를 인류 역사의 첫 계급사회인 이른바 ‘노예소유자사회’가 존재하고 ‘노예소유자’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전개된 시기로 정의하였다. 마르크스주의적 사적유물론의 역사 발전 단계에 따르면, 인류 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를 거쳐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노예제적 생산관계가 출현하게 된다. 본서는 바로 이 시기를 고대시기, 곧 인류 역사상 첫 계급사회인 ‘노예소유자사회’의 시기로 명명하고, 그 기본계급을 ‘노예소유자’와 ‘노예’로 구분한 것이다. 그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나라와 지역마다 고대국가 형성 시기와 봉건국가 형성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아시아에서 고대국가 형성은 기원전 30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봉건국가는 기원전 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준하여, 그 일반적인 시간 연대를 기원전 30세기 초에서 기원전 3세기로 설정하였다.¹⁴⁾

이어서, 제1장 제2절에서는 아시아고대사의 특징에 대해, 국가형성의 측면,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개괄하

14) 최광국, 앞의 책, 2018, 3~5쪽.

었다.

국가형성의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국가 형성 시기가 다른 대륙에 비해 훨씬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대동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4천년기 말~3천년기 초에,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3천년기 말, 황하 유역에서는 기원전 21세기경에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많은 고대국가가 형성된 것도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치제도적 관점과 경제제도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누어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치제도적으로 볼 때, 고대시기 전 기간 강력한 전제군주제가 지배적이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신분제도의 발생시기가 훨씬 앞선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신분제도가 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제도적으로는 아시아고대사에 보이는 기본착취대상과 착취방식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착취대상으로는 노예와 공동체원, 수공업자, 상인 등이 있었는데, 이중 기본적 착취대상이 노예가 아니라 공동체원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¹⁵⁾ 유럽 나라들과는 달리 노예가 공동체원에 비하여 수적으로 적고, 노예 노동이 국가적인 생산활동에 광범하게 이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착취방식 또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 유럽에서는 노예 노동이 노예소유자의 사적 소비 생산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한 상품 생산 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생산노예제 경리’인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노예 노동의 대부분이 가내 노동, 즉 노예소유자의 사적 소비를 위한 생산이나 각종 가내업무 등에 이용되는 ‘가내노예제 경리’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논점을 밝혔다.¹⁶⁾

이어서 제2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고대국가 형성에 대해, 고대문명발상지, 서아시아, 동부 및 남부 아시아 지역,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본서가 고대 아시아 전역을 서술 범위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문명발상지’를 따로 떼어서 제1절을 구성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흔히 ‘세계 사대 문명’으로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더스강 유역, 황하 유역, 나일강 유역과 함께 ‘대동강 유역’을 포함시켜 ‘고대문명발상지’로 규정하였다.¹⁷⁾ 특히 본서는 이 가운데 소위 ‘대동강 유역 문화’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고대문명발상지’ 가운데 대동강문화의 지위를 수위로 끌어 올렸다. 이는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북한이 주장하기 시작한 소위 ‘대동강 유역 문화론’¹⁸⁾이 아직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이 시기를 ‘노예소유자사회’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원시사회 → 고대 노예사회 → 중세 봉건 사회 → 근대 자본주의 사회 → 공산 사회의 이른바 ‘역사 발전 5단계설’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6) 최광국, 앞의 책, 2018, 11~14쪽. 본서에 ‘경리’라는 용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는 ‘경영’ 혹은 ‘관리’ 등을 일컫는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

17) 허종호, 「조선의 대동강문화는 세계 5대 문명의 하나」, 『력사과학』 1999-1(169), 61~65쪽.

18)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로는, 서일범의 「북한 고고학의 최근 동향과 <대동강문화론>」(『백산학보』 53, 1999), 장호수의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관리』(백산자료원, 2000), 임효제의 「대동강문화와 한강문화- 최근 평양 고대 유적 답사를 중심으로 -」(『한국선사고고학보』 9, 2002), 권오영의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하문식의 「대동강 문화론에서 본 북한 학계의 연구 경향」(『단군학연구』 14, 2006), 이영희의 「북한의 고대사 연구 동향- 학술지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조법종의 「북한의 대동강문화론과 고조선인식 검토」(『선사와

〈표 1〉 본서 제2장의 구성

각 절 제목	페이지와 주요 내용
제1절 고대문명발상지들에서의 국가형성	15~19쪽, 대동강 유역의 국가 형성 19~26쪽, 황하 유역의 국가 형성 26~36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 형성 36~44쪽, 인디스강 유역의 국가 형성
제2절 서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 형성	45~53쪽, 서아시아 지역의 국가 형성
제3절 동부 및 남부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형성	53~56쪽, 일본의 국가 형성 59~63쪽, 남아시아 갠지스강 유역의 국가 수립 56~59쪽,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형성
제4절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고대국가형성	63~77쪽, 중앙아시아의 국가 형성

이어서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소개한 아시아 지역의 고대국가에서 노예제도가 어떻게 수립되고 강화되었는지 서술하였다. 본서는 ‘노예제도’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노예소유자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노예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착취사회제도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노예와 농촌경제원들을 비롯한 피착취계급과 노예소유자계급 사이의 적대적 모순관계의 산물로서 발생한 노예소유자 사회제도는 크게 정치제도, 경제제도로 구분되며, 신분제도, 군사제도, 토지제도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먼저 고대시기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전제군주제가 지배적인 정치제도로 수립된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전제군주제 하에서 노예소유자계급이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노예를 비롯한 인

〈표 2〉 본서 제3장의 구성

각 절 제목	페이지와 주요 내용
제1절 전제주의적정치제도의 수립과 강화	80~91쪽, 우리나라 고대 전제군주제 91~101쪽, 중국 고대 전제군주제 101~106, 110~111쪽,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전제군주제 106~110쪽, 인도의 전제군주제 수립
제2절 노예소유자적경제제도의 수립과 강화	115~120쪽, 우리나라 노예소유자 경제제도의 수립과 강화 121~138쪽, 중국 노예소유자 경제제도의 수립과 강화 139~142쪽, 서아시아의 노예소유자 경제제도의 수립과 강화
제3절 신분제도의 수립과 강화	144~153쪽, 우리나라의 고대 신분제도 153~164쪽, 중국의 고대 신분제도 164~166쪽, 인도의 고대 신분제도

고대』 43, 2015), 오대양·조원진의 「2000년대 북한학계의 단군·고조선연구 현황 검토」(『선사와 고대』 54, 2017), 조법종의 「동북아 선사 민족주의와 대동강문화」(『단군학연구』 44, 2021) 등이 있다.

19) 최광국, 앞의 책, 2018, 78~79쪽.

민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노예소유자적 경제제도’의 수립과 강화를 설명하고, 이로써 아시아 각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신분제도의 수립과 강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이른바 ‘노예소유자적 경제제도’는 어떻게 쇠퇴되었는가? 본서 제4장은 노예제도의 쇠퇴를 고대국가의 멸망과 관련지어 논하고 있다. 본서는 인류 역사의 발전에 대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 대중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교체되어 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아시아 지역 고대국가들에 수립되었던 노예제도의 쇠퇴는 바로 노예제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지배계급의 내부적 모순과 대립의 격화, 봉건관계의 발생과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3〉 본서 제4장의 구성

각 절 제목	페이지와 주요 내용
제1절 노예제도의 쇠퇴요인	168쪽, 고대 우리나라의 노예제 반대 투쟁 169~171쪽, 고대 서아시아의 노예제 반대 투쟁 171~174쪽, 고대 중국의 노예제 반대 투쟁 175쪽, 서아시아, 남아시아 지배계층의 내부 모순 176~177쪽, 우리나라의 철기 178쪽, 중국, 서아시아, 남아시아의 철기 179쪽, 우리나라의 노예소유자적 경리의 쇠퇴 180~181쪽, 중국의 노예소유자적 경리의 쇠퇴
제2절 고대국가들의 멸망과 봉건국가의 형성	183쪽, 우리나라의 봉건사회로의 이행 183~185쪽, 중국의 봉건사회로의 이행 187쪽,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봉건사회로의 이행 188쪽, 서아시아의 봉건사회로의 이행

이 가운데 봉건관계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 ‘철기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대토지소유자(지주)와 예농(농노의 전신)이 발생하면서, 계급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이로 인해 ‘노예소유자적 경리’는 쇠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에 노예소유자 계급은 노예들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이 시기 대토지소유자들은 대신에 조세와 공물 등의 현물을 착취하는 봉건지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착취자로 등장한 봉건지주 계급이 국가 주권과 토지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모든 사회관계를 재판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보전할 봉건적인 법률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예소유자사회’에서 ‘봉건사회’로의 이행의 아시아적 특징은 무엇인가? 본서는 먼저 그 이행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다는 것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유럽에서 봉건사회 이행은 5세기 말 프랑크 국가의 수립인데 비해, 우리나라(기원전 277년 고구려 건국)²⁰⁾와 중국(기원전 221년 진시황의 통일)은 기원전 3

20) 북한에서는 1991년 발간한 『조선전사』 개정판에서 고구려 건국 연대를 기원전 277년으로 확정지었다(조선사회과학원 력사

세기에 이미 이행을 마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봉건사회 이행은 ‘게르만적 요소’와 ‘로마적 요소’²¹⁾의 결합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인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모종의 계승성을 띠고 이행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일부 개별적 사례를 제외하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예소유자사회를 거쳐 봉건사회로 이행하였지만, 고대시기부터 존재한 전제군주제는 봉건사회에 들어와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인 생산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지만, 정치적인 관계는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유럽에서 서로마제국이 몰락한 후, 영주제가 지배하고 소공국들로 이뤄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사회형태가 봉건사회의 지배적인 형태로 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²²⁾

마지막으로 본서는 제5장에서 아시아의 고대문명이 유럽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본서는 아시아의 고대문명이 유럽의 역사 발전에 준 영향을 밝히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럽의 고대국가 형성에 끼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라 하였다. 유럽에서 고대국가 형성은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아시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리스 같은 경우, 고대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에게문화’인데, 그것을 창조한 주민들이 바로 서아시아인들이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가 에트루리아인데, 바로 소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아시아인들에 의해 형성된 국가라는 것에서 아시아적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에트루리아 같은 경우 로마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로마 왕정시기 7명의 왕 가운데 3명이 에트루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

또 유럽의 고대 문화에도 아시아의 영향이 지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자 같은 경우, 서아시아의 자모 문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그리스와 로마 문자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수학과 천문학, 청동기와 철기 등 금속 제련, 그리고 건축과 조각 등도 유럽에 전파되어 유럽의 과학기술과 건축술, 예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본서의 편찬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에서 고대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을 정리한 후, 이들이 유럽에 준 영향을 서술함으로써, 아시아가 오히려 유럽 역사 발전에 영향을 줄 만큼 선구적인 역사 발전을 이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가 기존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나 ‘수력사회론’과 같은 주변적인 역사로 치부된 발전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 나름대로의 역사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오히려 유럽의 역사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소, 『조선전사(개정판)』 3, 1991, 11~32쪽). 1990년대를 전후하여 북한의 고구려사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손영종의 「고구려의 건국년대에 대한 재검토」(『력사과학』 1990-1, 39쪽), 이성계의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와 역사인식: 손영종 교수의 최근 저술에 보이는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고구려연구』 18, 2004), 강현숙의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문화재』 53, 2020) 등 참고.

21) 본서는 ‘게르만적 요소’로 게르만족의 원시공동체 사회 말기에 발생한 노예 소유자적 관계의 맹아로 지적하였고, ‘로마적 요소’로 서로마제국 말기에 발생한 봉건관계의 맹아를 제시하였다(최광국, 앞의 책, 2018, 189쪽).

22) 최광국, 앞의 책, 2018, 189쪽.

〈표 4〉 본서에서 명기한 참고문헌 목록(출판년도 순)

*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논저를 두 차례 이상 인용했을 경우 '페이지×횟수'로 표기한다.

번호	논저	출판사	출판연도	언어	본서 인용횟수 및 페이지
1	고대동방사	국립정치도서출판사	1948	노문	1회: 28
2	세계사대계2	성문당신광사	1958	일문	8회: 19, 31, 29, 37, 38, 61, 102×2
3	중국사1	교육도서출판사	1959	국문	2회: 31, 135
4	옥천대백과사전14	성문당신광사	1960	일문	2회: 4×2
5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국문	1회: 112
6	세계의 역사 5	중앙공론사	1963	일문	3회: 75, 76×2
7	세계의 역사 6	고우마서점	1963	일문	1회: 75
8	세계역사 6	이와나미서점	1979	일문	2회: 75, 77
9	중국고대전쟁전례선편 1	중화서국	1981	중문	1회: 95
10	중국고대사	인민출판사	1983	중문	3회: 24, 153, 158
11	역사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84	국문	3회: 24, 91, 159
12	세계국가와 법의 역사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국문	1회: 100
13	중국고대사	북건인민출판사	1985	중문	1회: 95
14	중국군사사 3	해방군출판사	1987	중문	1회: 95
15	중국력대관제간표	산서인민출판사	1987	중문	7회: 94×2, 97, 98, 101, 155, 156
16	중국고고학전서(고대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국문	1회: 120
17	세계사사료학(고대 - 근대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국문	3회: 96, 97, 103
18	조선전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국문	1회: 145
19	조선토지제도발달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국문	1회: 112
20	라틴아메리카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국문	1회: 7
21	중국노예사회사	상해인민출판사	1993	중문	14회: 25, 99, 121, 125, 130, 132×3, 138, 156, 157, 158, 161, 163
2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1995-3, 45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국문	1회: 84
23	조선고고연구 1995-1, 11~15쪽	사회과학출판사	1995	국문	1회: 152
24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 토론집(제2차)	사회과학출판사	1996	국문	1회: 116
25	역사연구 1996-1, 171~173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	국문	2회: 30, 36
26	조선고고연구 1998-4, 42~43쪽	사회과학출판사	1998	국문	1회: 117
27	중국고고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8	국문	6회: 22, 125, 128, 129, 130, 137

번호	논저	출판사	출판연도	언어	본서 인용횟수 및 페이지
28	세계력사	맥그레힐출판사	1999	영문	4회: 62, 144, 145, 185
29	조선대백과사전 19	백과사전출판사	2000	국문	1회: 99
30	조선대백과사전 23	백과사전출판사	2001	국문	1회: 173
31	세계력사편람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	국문	2회: 157, 160
32	외국고고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	국문	1회: 22
33	전통과 충돌	맥그레힐출판사	2003	영문	5회: 34, 47, 50, 60, 104
34	광명백과사전 1	백과사전출판사	2007	국문	2회: 117, 120
35	세계고대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7	국문	4회: 12, 35, 45, 62
36	규원사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9	국문	1회: 86
37	광명백과사전 2	백과사전출판사	2010	국문	15회: 48, 49, 51, 52, 54, 55, 56, 59, 91, 92×2, 100, 110, 162, 141
38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국문	8회: 82, 87, 88, 89, 145×2, 168, 181,
39	경제연구 2012-1, 55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국문	1회: 118
40	조선토지제도발달사 (원시 - 고려편)	사회과학출판사	2012	국문	1회: 123
41	대당서역기 권2			중문	1회: 69
42	삼국지 권30			중문	3회: 88, 145, 168
43	전한서 권96			중문	1회: 67

Ⅲ. 본서의 특징과 한계

1. 본서의 특징

먼저, 본서는 아시아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술했듯이 본서는 아시아 고대국가 형성의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많은 고대국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언급했다. 예컨대, 고대시기 아프리카에서는 국가 형성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동부 지역에, 유럽에서는 발칸 반도와 이탈리아반도에, 아메리카에서는 중미의 유카탄반도와 남미의 안데스지역에 국한되는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거의 전역에 걸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²³⁾

사실 아시아라는 지역적 단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틀로 서술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출간된 아시아 역사, 곧 ‘머리말’에서 언급한 시마다 마사오의 『アジア史』,²⁴⁾ 후지이에 레이노스케가 편찬한 『アジアの歴史』²⁵⁾는 아시아 각 지역을 단위로 장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각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도호샤 출판사의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시리즈도, 『중국사』, 『남아시아사』, 『중앙아시아사』, 『북아시아사』 등으로 나누어 아시아의 방대한 역사를 정리하였다.²⁶⁾

본서 역시 서술 과정에서 지역사적인 서술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서는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개별 세부 지역사의 모음집이 아닌, 고대 아시아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아시아 고대사를 서술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물론 제2장에서는 ‘고대문명발상지’, ‘서아시아’, ‘동부 및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로 각 절을 나누기는 했지만, 이는 대동강 유역을 ‘고대문명발상지’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일 뿐, 아시아 각 지역의 ‘고대국가의 형성’이라는 역사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본서는 ‘역사 발전의 동력’이자 ‘주체’를 ‘인민 대중’으로 설정하였다. 본서는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다. 노예소유자사회의 발전력사도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²⁷⁾라고 하였고,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고 재차 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고대사’의 시기를 설정할 때, 일률적인 시간적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각 지역의 ‘인민대중’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시간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표 5〉 아시아 각 지역의 고대국가 형성 시기

	우리나라	중국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부 및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고대국가 형성시기	BC3천년기초	BC21세기경	BC3200~BC2350년경 수메르지역	BC3000년경	BC4~3세기경 (일본, 베트남 등)	BC2세기 이전

본서는 노예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가내노예’로서 비생산업종에 종사하였고, 중국은 노예제적 대토지 소유에 의한 생산 노동에 종사하기도 하고, 또 수공업의 발전으로 ‘가내 노예 경리’도 발생하였다. 또 서아시아의 슈메르와 신바빌로니아왕국 같은 경우 ‘국왕경리’와 ‘신전경리’에 많이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민대중이 처한 각기 다른 상황을 강조하였다.²⁹⁾

23) 최광국, 앞의 책, 2018, 7~8쪽.

24) 이 책은 ‘동아시아지역’, ‘북아시아지역’, ‘서아시아지역’, ‘남아시아지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5) 이 책은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세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6) 각주 7) 참조.

27) 최광국, 앞의 책, 2018, 1쪽.

28) 최광국, 앞의 책, 2018, 5쪽.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대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들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교체되어 왔다는 점도 강조하였다.³⁰⁾ 아시아 노예제도의 쇠퇴요인 가운데 첫 번째를 ‘노예제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설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동안 북한에서 ‘아시아’를 단위로 한 역사 연구서가 없었기 때문에 본서는 출간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서가 언제부터 집필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고에 활용되고 있는 저자의 「문자발생에 대한 리해」와 「하라파문화의 계급적 성격」 등이 각각 2012년과 2015년에 발표된 것을 고려해 보면,³¹⁾ 최소 6년 이상 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아시아 역사 담론인가? 본서는 ‘맺는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³²⁾

북한은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평양 지역이 ‘고대문명’의 중심지라는 인식 속에서, 평양 주변의 여러 유적과 유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998년 ‘대동강문화’ 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³³⁾ 이를 통해 ‘대동강문화’가 세계 5대 문명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³⁴⁾ 오히려 기타 문명들보다 역사 발전 단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³⁵⁾ 이는 1989년 김정일이 제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근거하여 나타난 일련의 결과라 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대동강문화론을 가지고 북한이 서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대동강문화론은 국제적으로는 물론 심지어 북한 학계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경향도 있을 만큼 학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³⁷⁾ 게다가 우리나라는 서구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역사 발전 단계가 빨랐다는 것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서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9) 최광국, 앞의 책, 2018, 111~114쪽.

30) 최광국, 앞의 책, 2018, 167쪽.

31) 각주 12) 참조

32) 최광국, 앞의 책, 2018, 207쪽.

33) 서일범에 따르면 1998년 3월 11일 『로동신문』 4면에 「대동강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서 대동강문화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하였다(서일범, 앞의 논문, 1999).

34) 구체적인 고고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하문식(앞의 논문, 2006) 참조.

35) 본서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노예소유자사회로의 이행이 기원전 4000년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였다(최광국, 앞의 책, 2018, 16쪽).

36) 조법중, 앞의 논문, 2015, 41~42쪽.

37) 조법중은 심지어 북측 내부에서도 고조선의 평양중심설은 유지하되 ‘대동강문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조법중, 앞의 논문, 2015, 58~59쪽).

곧 북한이 ‘아시아고대사’라는 담론을 꺼내든 것은,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어쩌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리스 예계문명의 형성에 이집트와 서아시아의 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것이다.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했던 에트루리아인 또한 소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민족이라는 설이 보다 설득력 있다.³⁸⁾ 따라서 서구문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서아시아, 곧 넓은 개념의 ‘아시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른바 ‘대동강문화’의 대서구적 영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제5장을 보면, 서아시아의 자모 문자, 천문학 등의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영향을 서술하면서, 이른바 고조선의 ‘신지글자’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시기에 사용된 서체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글자라는 것, 그리고 대동강 유역에서 세계 최초의 천문학이 발생하고 발전했다는 이른바 ‘대동강문화’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대 서아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을 논하면서, 서아시아가 유럽보다 발전했다는 것을 언급한 후, 이른바 ‘대동강문화’의 내용이 서아시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제시하면서, 비록 유럽이 서아시아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동강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아시아 고대사’ 담론을 꺼내든 원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2. 본서의 한계

앞 절에서 본서 장절 구성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왜 ‘아시아 담론’인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곧 ‘아시아’의 역사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장절을 구성한 점, 역사 발전의 ‘주체’이자 ‘동력’인 ‘인민 대중’을 중심으로 서술한 점, 그리고 고대 ‘아시아’의 유럽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대동강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낸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본서의 구성적인 면에서, 아시아의 역사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장절을 구성하여 아시아 전역을 서술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각 장절별로 서술 내용에 부침이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시아 각 지역의 고대국가 형성을 다룬 제2장에서는 아시아 전 지역을 망라하였으나, 제3장부터는 일부 지역을 서술에서 누락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고대국가의 형성(제2장)과 멸망(제4장 제2절)만 기술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 고대국가 형성(제2장) 부분만 서술하고 있다. 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제3장 제2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급되어 있지만, 분량을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에 비해 분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서의 집필이 저자의 구상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참고문헌의 부족에서 찾고자 한다.

38) 최혜영, 「에트루리아 기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 『서양고대사연구』 61, 2021, 81~124쪽.

〈표 6〉 각 장절의 내용적 서술 분량

(숫자는 분량, 단위: 페이지)

장절	내용	지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제2장	고대국가 형성	5	7	4	19	12	4	14
제3장 제1절	전제주의 정치제도 수립 강화	10	10		10	2		
제3장 제2절	노예소유자적경제 제도의 수립 강화	6	17		3			
제3장 제3절	신분제도 수립 강화	10	10			3		
제4장 제1절	노예제도 쇠퇴	4	5		4	1		
제4장 제2절	고대국가 멸망과 봉건국가 형성	1	3	1	1	1	1	

본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어록을 제외하고, 총 124곳에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참고문헌의 표시 방식은 ‘* 《서명》 출판사 연도 쪽수’로 저자명을 생략한 것이 특징이다. 논문 같은 경우는 논문명도 생략한 채 학술지 이름만 노출하고 있다. 본서가 인용한 참고문헌은 총 43종으로 이중 국문이 25종, 노문이 1종, 영문이 2종, 일본이 5종, 중문이 10종이다. 이는 저자가 국내외 참고문헌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자가 참고한 영문 참고도서는 맥그로힐(McGrawhill) 출판사의 교과서 『세계력사(World History)』(1999년판)와 『전통과 충돌(Traditions and Encounters)』³⁹⁾(2003년판)인데, 이미 개정판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20년 전에 출간된 판본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영문 참고도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의 출판연도를 보면, 주석에 출판연도를 명기하지 않은 사료 3종을 제외하면, 1940년대 1종, 1950년대 2종, 1960년대 4종, 1970년대 1종, 1980년대 7종, 1990년대 13종, 2000년대 8종, 2010년대 4종이다. 2010년대 출판된 것도, 2010년 2종, 2012년 2종으로, 이 가운데 2종은 백과사전, 1종은 개설서, 나머지 한 종이 바로 학술 논문이다. 본서의 출판 연도가 2018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외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서의 장절별 참고문헌 인용 경향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중국 관련 부분에 참고문헌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관련 참고문헌은 제2장, 곧 고대국가 성립 부분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어쩌면 이는 다른 장절을 구성할 때 마땅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특

39)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전통과 교류』로 번역된다.

히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서술할 때는 37번, 곧 『광명백과사전』 제2권만 참고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4장 제1절, 노예제도의 쇠퇴 원인을 서술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노예제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은 동남아시아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⁴⁰⁾고 서술한 것 또한 저자의 의도에 비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해 개괄적 서술에 그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각 장절별 내용 서술에 부침이 생기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7〉 본문의 주석/참고문헌 배치표

숫자는 앞의 〈표 4〉의 참고문헌 번호. ‘x’뒤의 숫자는 각 장(절)에서의 인용 횟수
숫자 앞 도형 설명: ● 일문, ○ 영문, ★ 중문, ☆ 노문, 국문은 도형 없음

장절	이론 및 기타	지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제1장	●4×2, ○28, 20, 35							
제2장			●2, 22, 27, 11, ★10, ★21	37×3	☆1, 25, 35, ●2 ○33×2, 37×4,	●2×3, ○33, 35	37	★43, ★41, ●8×2, ●6×3, ●7
제3장 제1절		38×4, 36, 22, ★42	★11, 37×4, 3, ★15×5, ★9, ★14, ★13, 17×2, ★21, 29, 12		●2×2, 17, ○33, 37			
제3장 제2절		40, 24, 34×2, 26, 39, 5, 16	★21×7, 40, 19, 27×5, 3,		37			
제3장 제3절		★42, 38×2, 18, 23	★10, ★15, ★2, ★21×5, 31×2, ★11×2, 37					
제4장		38×2, ★42,	30					
제5장	○28×2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본서는 역사 발전의 ‘주체’이자 ‘동력’을 ‘인민 대중’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인민 대중’의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이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계급투쟁을 강조하게 되면서, 인민 대중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드러내는데 신경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예컨대, 중국 고대 토지제도로 알려진 ‘정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40) 최광국, 앞의 책, 2018, 174쪽.

정전제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井(우물 정) 모양으로 9등분한 다음 가운데 한몫을 사전(개인점유지), 그 둘레의 8몫을 공전(국유지 또는 공유지)으로 나누고 사전은 8개 농호에서 각기 한몫씩 경작시켜 그 소출을 가지게 하고 공전은 매 농호에서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여 그 수확물전량을 국가에서 수탈하는 고대중국의 토지제도였다.⁴¹⁾

다시 말해, 9등분한 토지 중 가운데가 사전, 주변이 공전으로, 사전과 공전의 비율이 1:8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정전제는 농민들을 극심하게 착취하는 토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이 있다. 전근대 시기, 정전제는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⁴²⁾ 이처럼 극심한 착취제도가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였을까?

선진시기 문헌 가운데 정전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편이다.

〈등문공이〉 필전(畢戰)을 시켜 〈맹자에게〉 정전(井地)에 대해 물었다. 맹자가 말하길, “그대의 임금께서 장차 인정을 펼치려 그대를 선택해 보내셨으니, 그대는 반드시 힘써야합니다!……사방 1‘리(里)’를 하나의 ‘정(井)’으로 삼으니, ‘정’은 900무(畝)인데, 그 가운데를 ‘공전’으로 삼고, 여덟 집안이 모두 〈그 주변〉 백무씩 사전을 가집니다. 이들이 함께 공전을 경작하는데, 공전 경작이 끝난 연후에 감히 사전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야인과 구별합니다. 이것이 그 대략적인 내용입니다.”⁴³⁾

이에 따르면 토지를 9등분하여 공전과 사전을 나누는 것은 본서의 서술과 똑같다. 그러나 본서가 가운데 토지를 사전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이를 공전으로 설명하면서, 주위의 8몫을 사전으로 하여 8가구가 각각 한 몫씩 경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전과 공전의 비율은 1:8이 아니라 8:1이 된다. 곧 한 가구가 사전 한 몫을 경작하고, 공전의 1/8을 경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본서에서 언급한 만큼 국가의 ‘인민 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원사화(揆園史話)』의 활용 문제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본서는 ‘아시아’를 지역적 범위로 하여, 아시아의 역사 발전 단계가 고대 유럽보다 빠르고, 또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유럽의 고대 국가 형성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탈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을 전면에서 드러냄과 동시에, 대동강 유역의 고대국가 발전과 문화적 우수성도 겸하여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서는 고대국가 발전에 대해, 다시 말해 고조선의 국가 성립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규원사화』라는 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본서 80~81쪽에서는 『규원사화』 등을 근거로 고조선의 중앙관료기구인 ‘8가제도’를 설명하고 있고, 82쪽에서는 고조선의 부도읍이라고 하는 ‘장당경(藏唐京)’을 설명하고 있으며, 84~86쪽에서는 단군이 제정했

41) 최광국, 앞의 책, 2018, 124쪽.

42) 이영호, 「유교의 민본사상과 조선의 정전제 수용」, 『퇴계학논총』 15, 2009.

43) 『孟子注疏』卷5上, 『十三經注疏(附校勘記)』, 清阮元刻本, 北京: 中華書局, 1980년판, 2702~2703쪽. “使畢戰問井地,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다고 하는 이른바 ‘단군8조’⁴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 볼 것이 있다. 바로 이 『규원사화』라는 책의 사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규원사화』는 조선 숙종 2년(1675) 북애자(北崖子)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으로, 고려 말 이명(李荈)이라는 사람이 지은 『진역유기(震域留記)』라는 책을 참고하여 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단국(檀國)’이라는 나라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린 왕의 호칭이 바로 ‘단군’이다. 이 책은 바로 총 47명에 달하는 ‘단군’의 사적을 정리한 책으로, 그동안 ‘신화’라고만 전해지던 단군조선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를 위서(僞書)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⁴⁵⁾

북한 학계에서 『규원사화』가 적극 활용된 시기는 공고롭게도 ‘대동강문화’ 담론이 형성되던 1990년대부터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전술했듯이 ‘대동강문화’ 담론은 1990년대 추진된 이른바 ‘단군릉’을 비롯한 평양 대동강 유역의 고고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북한 학계는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전자상자성 공명법(Electron Spin Resonance)’ 등을 바탕으로 단군 유골의 연대측정값을 기원전 30세기 초라는 상한연대를 설정하였다.⁴⁶⁾ 그러나 그동안의 단군 전승에 의한 고조선 건국연대는 기원전 2333년으로, 기원전 3천년기 중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7명의 ‘단군’ 사적을 정리했다고 알려진 『규원사화』라는 책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바로 그동안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규원사화』는 물론 『이재전서(頤齋全書)』⁴⁷⁾라는 책도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는데,⁴⁸⁾ 그 결과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를 기원전 2993년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 『규원사화』라는 책을 1차사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원사화』라는 책이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지학적인 진위여부는 물론 내용적인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하는데, 서지학적으로는 위서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검증할 만한 동시대적, 최소한 신뢰성이 담보된 문자 혹은 고고 자료의 교차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2018년 백과사전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최광국 교수의 『아시아고대사』의 저술 목적과 구성, 그리고 특징과 한계에 대해 간단히 논하였다.

44)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금팔조’와 다른 것으로, 북한에서는 ‘범금팔조’를 후조선 초기의 것으로, ‘단군8조’를 전조선 시기의 관습법과 직령법 형태를 갖춘 당시로서는 발전된 노예소유자법으로 여기고 있다(최광국, 앞의 책, 2018, 84~87쪽).

45) 김성환, 「단군전승의 양상을 통해본 『규원사화』의 자료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86, 2014, 301~302쪽.

46) 유적과 유물의 구체적인 측정연대에 대해서는 하문식(앞의 논문, 2006, 3~22쪽) 참조.

47) 『이재전서』는 조선 후기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글을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여기서 황윤석은 단군조선의 존속연대를 1908세, 1048세 혹은 2800세로 언급했다고 한다(오대양·조원진, 앞의 논문, 2017, 77쪽).

48) 오대양·조원진, 앞의 논문, 2017, 76~79쪽.

먼저, 본서는 탈서구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 발전 단계를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아시아 나름대로의 역사 발전을 탐구하여,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구의 역사 발전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서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아시아고대사의 범위를 ‘노예소유자사회’가 존재하고 ‘노예소유자’를 반대하는 인민 대중의 투쟁이 전개된 시기로 설정한 다음, 아시아고대사의 특징에 대해 ‘국가형성의 측면’과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개괄하였다. 이어서 고대국가의 형성, 그리고 노예제도의 수립과 강화를 논한 후, 인민 대중의 투쟁과 지배층 내부의 분열 등을 통해 노예제도가 쇠퇴하고, 고대국가들이 멸망함과 동시에 봉건관계가 발생하고 발전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아시아의 고대문명이 유럽의 국가 형성에 준 영향을 밝히고, 이어서 문자, 수학, 천문학, 금속 제련, 건축, 조각 등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끼친 영향을 서술함으로써, 유럽의 역사 발전이 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오히려 유럽의 역사 발전에 영향을 줄 만큼 선구적인 역사 발전을 이룩해 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서는 아시아에서 고대국가가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서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 장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본서는 ‘역사 발전의 동력’이자 ‘주체’를 ‘인민 대중’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고대사’의 시기를 설정할 때, 각 지역 ‘인민 대중’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고, 노예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지금 아시아 역사 담론인가? 이는 탈서구중심주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대동강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양양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유럽의 고대국가 형성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서아시아를 ‘아시아’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켜, 고대부터 ‘아시아’가 서구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것을 언급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대동강문화’가 가장 먼저 형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한계점도 노출하고 있다. 먼저, 본서가 아시아 전역을 서술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각 장절별로 서술 내용이 지역적 부침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자가 참고할 만한 문헌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서술 과정에서, 국가의 ‘인민 대중’에 대한 착취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대 중국의 ‘정전제’에 대한 오해가 확인되는데, 본서는 정전제 하의 공전과 사전의 비율을 8:1로 서술하면서 그 착취성을 강조하였으나, 관련 문헌을 확인한 결과 공전과 사전의 비율은 8:1이 아닌 1:8로 그 착취성을 설명하기에 적절치 않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위서(僞書)로 인식되는 『규원사화』라는 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규원사화』라는 책은 1990년대 북한의 이른바 ‘대동강 문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서지학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학술적인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孟子注疏』, 『十三經注疏(附校勘記)』, 清阮元刻本, 北京: 中華書局, 1980년판.

- 강현숙, 「북한의 고구려 고고학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화재』 53, 2020.
- 권오영, 「단군릉 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2003.
- 김성환, 「단군전승의 양상을 통해본 『규원사화』의 자료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86, 2014
- 서일범, 「북한 고고학의 최근 동향과 <대동강문화론>」, 『백산학보』 53, 1999.
- 손영중, 「고구려의 건국년대에 대한 재검토」, 『역사과학』 1990-1.
- 오대양·조원진, 「2000년대 북한학계의 단군·고조선연구 현황 검토」, 『선사와 고대』 54, 2017.
- 오스발트 A.G. 슈팽글러(저), 양해림(역), 『서구의 몰락』(개정판 리커버), 책세상, 2019년판.
- 이성제,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와 역사인식: 손영중 교수의 최근 저술에 보이는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8, 2004.
- 이영호, 「유교의 민본사상과 조선의 정전제 수용」, 『퇴계학논총』 15, 2009.
- 이영화, 「북한의 고대사 연구 동향-학술지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 2009.
- 임효재, 「대동강문화와 한강문화-최근 평양 고대 유적 답사를 중심으로-」, 『한국선사고고학보』 9, 2002.
- 장호수,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관리』, 백산자료원, 2000.
- 조법중, 「동북아 선사 민족주의와 대동강문화」, 『단군학연구』 44, 2021.
- 조법중, 「북한의 대동강문화론과 고조선인식 검토」, 『선사와 고대』 43, 2015.
-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개정판)』 3, 1991.
- 최광국, 「고대아시아노예제도의 특징」, 『역사과학』 2019-1.
- 최광국, 「문자발생에 대한 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률』 58: 2(462), 2012.
- 최광국, 「미일사의 호상방위원조협정과 종속적인 군사적결탁의 강화」, 『역사과학』 2006-1(197).
- 최광국, 「일본에서 자민당지배체제수립과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률』 57: 3(453), 2011.
- 최광국,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대아시아전략에서 주목되는 대일정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1: 2(378), 2005.
- 최광국, 「제2차 세계대전후 오키나와를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미제의 책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률』 59: 1(471), 2013.
- 최광국, 「하라파문화의 계급적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률』 61: 1(495), 2015.
- 최광국, 『아시아고대사』,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8.
- 최혜영, 「에트루리아 기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 『서양고대사연구』 61, 2021.
- 하문식, 「대동강 문화론에서 본 북한 학계의 연구 경향」, 『단군학연구』 14, 2006.
- 허종호, 「조선의 대동강문화는 세계 5대 문명의 하나」, 『역사과학』 1999-1(169).

大澤陽典, 大庭脩, 小玉新次郎編, 『アジアの歴史』, 京都: 法律文化社, 1995년판.

島田正郎, 『アジア史』, 京都: 啓文社, 1977년판.

藤家禮之助 編, 『アジアの歴史』, 東京: 南雲堂, 1993년판.

松田壽男, 『アジアの歴史』,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년판.

永田英正 責任編集, 『アジアの歴史と文化-中国史』(1~5), 同朋舎, 1994~1995.

Heikki Mikkeli, *Europe as an Idea and an Identity*,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1998, p.3.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로동신문』 2021-7-24.

「亞洲文明對話大會 中國·北京 5.15-22」, 『光明網』, https://topics.gmw.cn/node_122154.htm, 2022-8-1
검색.

* 이 논문은 2022년 8월 31일에 투고되어,
2022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0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ncient Asia in North Korea's Memory: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sia Ancient History* by Choi Kwang-guk**

Lee, YouPyo*

This article discusses the purpose and composition of the writings of *Asian Ancient History* written by Choi Kwang-guk, a professor of history at Kim Il-sung University in North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author set the scope of 'Asian Ancient History' as the time when the struggle between the 'slavery owner' and the masses (including slaves) unfolded. The author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book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Asia's ow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de-westernism'. In this context, the author constructed a chapters according to the rise and fall of the 'slavery owner society'. And the last chapter presents the influence of Asia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history. In this respect, this book ha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ferences,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ups and downs of content description, excessive interpretation (e.g., interpretation of the "nine squares" system), and the use of unverified literature.

[Keywords] Choi Kwang-guk, *Asia Ancient History*, North Korea, De-westernism, Taedonggang Culture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Fellow

